

Publication: Electronic Times

Date: 17/11/2011

Subject: Gartner Said, "Just Increasing WiFi Zone Can Pose a Serious Threat to Telocom's Profitability"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11160121>

가트너, "당장 급한 불 끈 '와이파이' 이동사에 독 될수도..."

발행일 2011.11.16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핫 스폿을 늘리는 전략이 향후 이동통신사 이용자 콘트롤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비디오 등 고대역폭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수익으로 연결해야 하는 이동사 입장에서 '공짜'인 핫 스폿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안 킨 가트너 부사장이 16일 태국 푸켓에서 열린 넷이벤츠 2011에서 발표하고 있다

16일 태국에서 개최된 '넷이벤츠 2011'에서 미안 킨 가트너 부사장은 "필요 대역폭이 증가하면서 이동사들이 고객을 와이파이존 같은 핫 스폿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홍콩예별 투선(LTE) 등 4G 서비스에서 좀 더 빠르고 많은 대역폭을 제공한다고 프로모션을 해도 와이파이에 익숙한 고객을 다시 끌어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킨 부사장은 "현재 미국 주요 도심 와이파이 접속 비율은 많게는 60%까지 증가한 상태"라며 "핫 스폿 증가로 향후 이동사 데이터 제공 수익이 약화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질문을 던졌다.

킨 부사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신 시장에 대해서 여러 조건이 혼재된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아태지역 주요 국가 유선 성장률은 거의 포화됐다. 따라서 무선으로 이를 보충하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홍콩, 한국, 일본 등 이미 성숙한 시장과 중국, 태국, 인도 등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섞여 있어 일반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 인프라 투자는 각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5년 뒤를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킨 부사장은 "(성숙한 시장인) 한국과 일본은 먼저 인프라를 깔고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경우"라며 "앞으로 국가 상황에 따라 물리적 투자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국가나 통신 사업자가 잘못된 예측으로 구축한 인프라에서 충분한 수익을 뽑아 내지 못해 재정적인 위험에 부딪힐 가능성도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